



I. 서론

베트남 소수민족 교육 현황과 사례분석: 짚라이(Gia Lai)성 소수민족 교육을 중심으로*

윤티탄프영(인하대학교)**

황혜영(인하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민족 국가인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교육이 베트남 정부가 지향하는 진정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짚라이성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로는 현재 베트남 정부 소수민족 교육의 학문적 현황을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헌법에서 나타나는 모든 민족의 평등과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둘째로는 소수민족 학생이 다수인 베트남 중부 지역 짚라이성의 소수민족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교육은 제도적 지원 이외에 소수민족 학생을 대상으로 취학을 개선과 언어교육의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짚라이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베트남은 인구 간의 교육적 격차가 현저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민족 학생들의 낮은 취학률이나 높은 학업 중단 비율은 베트남의 소수민족 교육이 베트남 정부가 지향하는 진정한 민족 간의 공존과 다양성을 확보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소수민족 교육의 방향을 이중언어 교육의 확대, 교원양성과정에서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이해교육의 실시, 긴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성에 대한 교육 강화로 제시하였다.

★ 주제어: 베트남, 소수민족, 소수민족 교육, 이중언어 교육, 문화다양성

베트남은 54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다. 이 중 긴족(Kinh Ethnic Group)은 주류 민족으로 베트남 인구의 86%를 차지하며, 나머지 14%에 해당하는 1,340만 명은 소수민족이다(베트남 민족위원회, 2017).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은 주로 산악지역과 국경 지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계급, 국가 치안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소수민족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에 관한 정책은 국가의 존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Lâm Bá Nam, 2010). 베트남 정부는 민족과 관련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전개해왔으며, 베트남의 1945년 8월 혁명 이후 베트남 민주 공화국이 탄생한 이후부터 '하나의 베트남 민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들의 공존을 모색해왔다(Vương Xuân Tình, 2016).

베트남 헌법에서는 모든 민족의 평등을 보장하고 차별과 분리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와 문자의 사용,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여 소수민족의 문화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Vương Xuân Tình, 2016). 이러한 헌법에 따라 민족 관련 정책은 각 민족 간의 평등, 단결, 서로를 위한 협조를 통해 함께 발전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다양 속의 통일' 원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Lâm Bá Nam, 2010). 이러한 배경 아래 베트남의 소수민족 교육은 '다양 속의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학계에서 민족의 개념은 두 가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언어, 문화 등을 공유하는 민족(Ethnicity, Ethnic group)과 여러 민족이 같은 영토에서 통일된 정치·경제·사회 체계 하에 함께 공존하는 국가-민족(Nation)이라는 의미이다(Phan Huy Lê, 2012). 이러한 민족에 대한 개념은 1950년대부터 베트남 역사학, 민족학, 문화학자들로부터 최초로 토론된 이래 활성화되었으며 베트남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베트남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으나, 이들은 또한 베트남 영토 안에서 함께 '하나의 베트남 민족'으로 통일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ethnic)과 국가-민족(nation)의 관계는 '다양 속의 통일'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성립된 것이다.

Vương Xuân Tình(2016)에 따르면 다민족 국가인 베트남에서, 민족(ethnic)과 민족-국가(nation) 간의 관계는 민족과 나라 간의 관계와 동일하며, 이 관계의 본질은 다양 속에서의 통일이라는 원칙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민족들의 다양성은 통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민족-국가의 발전은 민족들의 독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족-국가 측면에서는 민족의 독특성에 방해를 주지 않을 통일 방법을 확정해야 하고, 민족 측면에서는 자신의 독특성을 보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405802).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박사수료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글로벌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팀 연구교수 (haiying04@hmai.com)

존하면서 나라의 통일성 속에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단결, 평등, 그리고 함께 발전을 위한 서로의 협조를 바탕으로 민족 정책에 있어 이러한 원칙을 지향해왔으며, 헌법과 법률에서 역시 '다양 속의 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1946년 베트남 최초의 헌법 제2장에서는 “베트남은 주권을 가지는 독립된 국가이며, 분열할 수 없는 통일된 영토로 국민들은 조국을 보호하고 지키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는 내용을 제시한 후에 베트남의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 모든 민족의 평등을 보장하고, 차별과 분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1959년의 헌법, 1992년의 헌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에서는 각 소수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와 문자의 사용,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문화 다양성 요소로 언어와 문자 사용, 전통, 풍습, 관습을 제시하고 있다(Vương, Xuân Tinh, 2016). 특히 2013년 개정된 베트남 헌법 제2장 42조항에서는 국민이 민족을 확립하여 모어 및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국가는 산속 지역, 해도 지역, 경제·사회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을 우대적으로 발전시킨다.”라고 하여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을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전략적 목표로 삼아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규정하고 있다(Nguyễn Văn Chiêu & Trần Văn Kham, 2016).

베트남 헌법 제5조에서는 베트남 사회 공화국은 베트남 영토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의 통일된 국가임을 제시하고 있으며(제1호), 모든 민족들의 평등과 단결을 통한 발전 원칙과 차별 및 분열 행위의 금지(제2호), 각 민족의 언어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제3호), 소수민족들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국가의 지원 마련(제4호)을 규정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2006-2012년 베트남 정부에서는 소수민족의 지역 발전을 위한 160 법률 서류를 발행하였다. 이 중에서 빈곤 감소, 빈곤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등에 관한 30a/2008/NQ-CP 정책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베트남 학계에서의 소수민족에 관한 연구들은 다민족 국가의 특징을 반영하여 각 민족들의 근원, 문화, 풍습, 또한 각 민족들의 사회의 내부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이 다뤄지고 있다. 그 중에서 소수민족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정부의 지원 정책 혹은 프로그램 효과 분석(Trần Trí Dõi, Nguyễn Văn Thiện, 2004; Hoàng Hợp Mạnh, 2014),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한 언어교육(Trần Trí Dõi, 2001; Vũ Thị Thanh Hương, 2017), 그리고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업 중단 개선 방안(Lê Thị Bích Ngân, 2011; Tạ Thị Diệp, 2014) 등이 진행되어왔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소수민족 학생들은 학업 중단 비율이 여전히 민족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보존만이 소수민족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다민족 국가인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교육이 베트남 정부가 지향하는 진정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이루고 있는지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는 베트남의 소수민족 교육 현황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베트남의 교육 정책 및 방향을 베트남의 법적 문서 및 문헌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고, 소수민족의 비율이 높은 중부 지역의 찰라이(Gia Lai)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이다.

II. 베트남의 소수민족 교육 정책 및 현황

1. 베트남의 소수민족 교육 정책

베트남 헌법에서 나타나는 사회통합을 위한 평등과 차별 금지의 원칙, 소수민족 발전을 위한 법률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에서는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현행 교육법 제7조에 의하면, 베트남어는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소수민족 학생들이 자민족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휘할 수 있으며, 학습과정에서 지식을 보다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기 위해 자민족의 언어와 글자로 배울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준다. Lê Kiêu Trang (2016)에 따르면 소수민족과 관련한 베트남의 교육 정책을 통해 베트남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수민족 교육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학비 지원, 학교 건립과 인프라의 확장, 교육 조건의 향상, 교육 불평등 감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비 면제나 장학금에 의한 교육비 경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소수민족 학생에게 학비의 일부 혹은 전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소수민족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수민족 학생들은 50%의 학비를 면제받으며, 민족 기숙학교에 다니는 소수민족 학생들은 1985년부터 학비 전액을 면제받고 있다.

둘째, 소수민족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학교의 건립과 교육 인프라 지원이다. 1985년부터 베트남에서는 소수민족 학생 위한 특별한 학교인 ‘기숙학교’와 ‘공동체 기숙학교’에 관한 정책이 만들어졌다. 가난한 지역 및 벽지의 소수민족 인재를 활용하여 인근 대학교와 전문 대학교의 교육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는 소수민족 언어를 제2언어로서 가르치고 있으며, 소수민족을 위하여 소수민족 언어로 쓴 교과서를 제공한다. 또한 소수민족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현지인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133호 지원 프로그램과 135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와 교실을 더 튼튼하게 건설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학교를 견고화하는 159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교육 조건의 향상 정책의 개발이다. 베트남 정부는 학교에서 소수민족 언어로 가르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학생 선발 정책인 134/CP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의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할 목적으로, 졸업한 후에는 해당 지방에서 최소 5년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교·전문 대학교에 입학시험 없이 입학하게 된다.

넷째, 성장 배경에서 교육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이다.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는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아에게 학령 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는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하절기 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36일 동안 운영한다. 이후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서는 입학 전 예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교에서의 학습 수행에 필요한 일종의 기초 보강 학습 코스라고 할 수 있다. 소수민족 학생은 1년 동안 보강 학습 코스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학생에게 적합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2. 베트남의 소수민족 교육 현황

비록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학생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 학생들의 낮은 취학률과 학업중단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베트남 Unicef의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Kinh족(Kinh)학생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을 마치는 비율이 86.4%에 달하나, 소수민족 학생들은 60.6%만이 초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소수민족 학생들은 중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중단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열악한 가정 환경, 부족한 교육 인식,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학업적 어려움, 집에서 학교까지의 지리적 거리, 교사가 학생의 언어를 능통하지 못함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Lê Thị Bích Ngân, 2011).

이처럼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도 취학률이나 학업중단 비율과 관련된 통계적 수치를 통해 Kinh 학생과 소수민족 학생들의 교육 참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수민족 학생들은 모국어가 아닌 베트남어로 학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열악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많은 소수민족 학생들은 가정에서 중요한 노동력으로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의 농사일을 도와줘야 하기도 한다(이엔바이성 보도자료, 2018).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트남 정부는 그간 소수민족 학생들의 취학을 개선 및 학업 중단 비율의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2012-2013년도까지 베트남 전국 아동 중에서 학교를 다니는 소수민족 아동의 수는 16.32%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소수민족 아동의 유치원 교육 접근 권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유치원 교육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인 218읍을 없애고, 유치원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00-2001학년부터 2012-2013학년 사이에 전국 중학생 수 중 소수민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2013학년에 이 비율은 15.9%에 도달해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들의 규모적인 면에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베트남 교육부, 2015). 특히 2010년부터 민족 기숙학교에 관한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소수민족 학생들의 취학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공용어는 주류민족인 Kinh족의 언어(Tiếng Việt)이며, 베트남 교육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도 역시 이 공용어이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대부분 소수민족 학생들이 베트남어로 사용하는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학생들이 교육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즉, 수많은 소수민족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언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많은 소수민족 학생들은 학령기 초기 단계에서 한정적인 베트남어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는 수준이다(베트남 교육부, 2015).

이에 2015년 베트남 정부는 '2016-2020년도 소수민족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위한 베트남어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소수민족 아동들에게 연령에 적절한 베트남어 실력을 갖추어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을 완성하며, 더 높은 교육과정의 지식도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전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수민족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자체, 교육 관리자,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고 공도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을 위해 학습자료 마련 및 교사 양성, 그리고 이 사업을 정규 교육과정에 추가한다. 그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사업을 사회화를 시키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장한다. 현재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베트남 전국의 각 지역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소수민족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들 중에서 소수민족 언어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수민족 학생들의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괴감을 잃는다고 한다(베트남 교

육부, 2010). 이는 소수민족 학생들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는 비율(87.7%)이 상대적으로 낄족 학생들의 비율(97.6%)에 비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Tổng cục thống kê và Unicef, 2015).

베트남 교육부는 2006년부터 베트남 UNICEF와 협조하여 소수민족 학생들의 모어를 기반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소수민족 학생들의 모국어를 주요 사용된 교육언어로 사용하고 공용어인 베트남어를 제2언어로 교육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는 이들의 모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베트남어를 제2언어로 교육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전환의 단계로 학생들의 모국어와 베트남어를 병행하여 교육 진행하는 것이며,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5학년부터는 학생들의 모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능통할 수 있으며, 국가의 표준 교육과정을 맞출 수 있는 목표이다.

2007년 MOU 체결 후 교육부와 UNICEF는 라오카이(Lào Cai), 찰라이(Gia Lai), 짜빈(Trà Vinh) 3지역에서 허몽어, 쓰라이어, 그리고 케머어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범 교육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범 교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합한 이중언어 교육의 실시를 위한 것이다. 이 연구 사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소수민족 학생들의 결과 평가 및 교수학습 방법을 포함한 구체적 연구, 둘째, 정책 확정자, 그리고 학생들을 비롯한 교감, 교사, 교육관리자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사업을 위해 협조, 셋째, 소수민족 언어로 교수학습 자료, 참고 자료, 미디어 자료 만들기, 넷째,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교사 양성 프로그램 진행, 또한 정규과정에서 교사 양성 지향, 다섯째, 교육 관리자, 교사, 보조교사, 그리고 실습생들이 연구 현지 지역에서 이해하고 모어를 기반으로 한 이중언어 교육의 방법을 학교 관리 및 수업 진행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기이다.

Ⅲ. 베트남 찰라이(Gia Lai)성에서의 소수민족 교육 프로그램

찰라이성은 베트남 떠어응웬(Tây Nguyên)¹⁾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34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민족적 다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찰라이성

1) 떠어응웬(Tây Nguyên)은 베트남 중-남부에 위치하는 고산지대를 의미하며, 찰라이(Gia Lai), 꼰툼(Kon Tum), 닥락(Đắk Lắk), 람동(Lâm Đồng), 닥농(Đắk Nông) 5성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베트남의 다른 지역보다 소수민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김영순 외(2013)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20여 소수민족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몬크메르 그룹과 말라이-다다오 그룹에 속한다. 몬크메르어계에 속한 민족은 서단족, 바나족, 마족 등이 있고 말라이-다다오어계에 속한 민족은 자라이족과 에레족 등이 있다.

의 인구는 56.3%의 낄족과 43.7%의 소수민족(짜라이족 29.7%, 바나족 12.1%, 기타 소수민족 8.8%)으로 구성되어 있다. 찰라이성은 3시, 14현의 행정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심도시인 플레이쿠(Pleiku)와 안케시(Thị xã An Khê)에서는 약 90%의 낄족이 거주하고 대부분의 소수민족 주민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찰라이성은 베트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소수민족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요 경제활동으로 삼고 있는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겪고 있다(Tạ Thị Diệp, 2014). 따라서 소수민족 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찰라이성이 속한 떠어응웬 지역은 베트남 과학교육원의 민족연구소와 베트남 UNICEF의 지원으로 2008-2009년부터 최초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실제적인 소수민족 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1. 찰라이성 소수민족 교육의 현황

베트남 UNICEF의 연구의 따르면 다른 성과 마찬가지로 찰라이성에서도 인구 그룹 간의 차이 및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교육 측면에서 살펴보면 찰라이성은 소수민족 학생들의 비율이 높지만, 소수민족 학생들의 취학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2011-2012년도 찰라이성 낄족과 소수민족 초·중·고등학생 수 (단위: 명)

구분	낄족	소수민족
초등학교	73,921	81,480
중학교	55,046	33,959
고등학교	34,069	7,351

출처: 찰라이성 교육청 통계자료

위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찰라이성의 소수민족 초등학교 학생의 수는 거의 주류 민족인 낄족 학생의 수와 비슷하지만 고학년일수록 소수민족 학생의 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2012학년의 소수민족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8만 명이 넘어 낄족 초등학교보다 많지만, 중학생부터는 낄족 학생의 수가 소수민족 학생보다 많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낄족 학생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즉, 소수민족 학생들은 고학년으로 진학하지 않은 뚜렷한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찰라이성의 소수민족 교육 현황은 다음 <표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찰라이성 소수민족 학생들의 교육과정 완성 비율 (단위: %)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킨족	소수민족	킨족	소수민족
전국	25.1	15.2	22.7	9.0
띠이응웬	26.4	9.6	18.6	3.8
찰라이	25.5	6.5	17.5	2.1

위의 <표 2>에 따르면 찰라이성의 킨족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완성 비율은 전국을 비롯한 띠이응웬 지역의 비율과 비슷하나, 소수민족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완성 비율은 낮은 편이다. 베트남 Unicef의 보고서의 따르면 찰라이성 소수민족 학생들의 교육 비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수민족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베트남어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 속에 언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들은 교육과정을 맞추어가기 힘들다. 둘째, 대부분 소수민족 지역민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한정적인 경제적 조건은 역시 학생들이 중간에 퇴학해서 가족을 돕기로 하게 만들거나, 먹고사는 것만으로도 힘든 이들의 학부모들의 교육 인식이 한정적이다. 셋째, 소수민족 학생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 및 관심이 깊고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민족 학생들은 충분한 교육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다.

2. 실제적 프로그램

찰라이성에서 실행되고 있는 소수민족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소수민족 언어 교육의 실시, 이중언어 교육의 실시, 그리고 소수민족 학생들 위한 등교 운동 프로그램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찰라이성의 실제적 프로그램은 다음 <표 3>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찰라이성의 소수민족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1	초등학교에서 소수민족 언어 교육의 실시	찰라이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찰라이족과 바나족의 언어를 초등학교 교육 과정의 선택과목으로 추진
2	소수민족 학생의 모어를 기반으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	소수민족 학생의 비율이 높은 띠이응웬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소수민족 학생의 모어를 기반으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3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등교 운동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자, 교사들의 적극적 운동

가. 초등학교에서 소수민족 언어 교육의 실시: 선택 과목으로

2008년부터 찰라이성은 소수민족 언어(짜라이어와 바나어)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으로 추진하였다. 2008-2009년도에 찰라이성에서 81개의 초등학교가 소수민족 언어 교육을 신청하였으며, 약 7000명의 학생이 짜라이어, 그리고 760명의 학생이 바나어를 배웠다. 이후 소수민족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2-2013년에는 찰라이성 300개의 초등학교 중에 106개의 학교에서 소수민족 언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10,000명의 짜라이족 학생과 2000명의 바나족 학생이 모어를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3-2014년에는 많은 학교에서 소수민족 언어 과목 대신에 영어나 컴퓨터 수업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2014-2015년에 소수민족 언어 교육을 진행하는 106개의 학교는 98개로 그 수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수민족 학생의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소수민족 언어 과목의 교육 시간이 다른 일반 선택 과목의 교육 시간보다 2배 많기 때문이다. 일반 선택 과목은 1주일에 2교시로 진행되지만, 소수민족 언어의 교육 시간은 교육부의 규정에 의하여 1주일에 4교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2016년부터 초등학교들에서 소수민족 언어를 선택 과목으로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찰라이성 교육청은 1주일에 4교시를 2교시로 조절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찰라이성을 비롯해 베트남에서의 소수민족 언어 교육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 Đoàn Văn Phúc (2012)에 따르면 소수민족 언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 인력이 부족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기관에서도 소수민족 언어 교육을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하기에 전문 교수진이 부족한 것이 그 주요 원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찰라이성의 경우에는 34개의 민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소수민족 언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양한 소수민족 언어를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어려움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소수민족

의 분포가 다양하다 보니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에 한계가 있어 지역마다 그 인구학적 특색에 맞게 맞춤형의 교육 지원 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던져지고 있다.

나. 소수민족 학생의 모어를 기반으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

소수민족 학생의 모어를 기반으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베트남 과학교육원의 민족교육연구소와 베트남 Unicef의 지원으로 2008-2009년부터 최초로 띠이웬 지역에서 실험 모형으로 운영되었다. 찰라이성은 이 모형을 소수민족학생의 비율이 100%인 3개의 초등학교(이아그라이현 (Huyện Ia Grai)의 응오머이(Ngô Mây) 초등학교 와 리뜨쨥(Lý Tử Trọng) 초등학교, 그리고 즈파현(Huyện Chupah)의 이아피(Iaphia)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이 3개 초등학교에서는 8개의 학급을 이중언어로 운영되었다.

소수민족 학생의 모어에 의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학생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효과를 보였다. Vũ Thị Thanh Hương (2017)은 찰라이성 특정 초등학교에서 베트남어로만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수행한 학생들과 베트남어 및 짜라이어(짜라이족의 언어) 모두 사용되는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짜라이족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부족하며, 교사가 베트남어와 짜라이어 모두 사용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적을 보이는 추세이다. 즉,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베트남어는 많은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학습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이며, 특히 저학년일수록 소수민족 학생들은 베트남어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능력이 낮은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어와 동시에 학생들의 자신의 민족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소수민족 학생의 모어에 의한 이중언어 교육 모형은 소수민족 학생들이 일찍이 자신의 민족의 언어,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수민족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소수민족 학생의 모어에 의한 이중언어 교육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실제로 이중언어 모형이 실시된 후 찰라이성에서 학교를 다니는 소수민족 학생의 수는 10% 증가하였다. 특히 2014-2015학년에는 약 46만명의 학생이 등교하였으며, 총 학생 수의 32%를 차지하였다.

다.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등교 운동

비록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소수민족 학생들의 교육률

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소수민족 학생과 긴족 학생들 간의 교육적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은 현실이다. 특히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업 중단 문제는 베트남 교육기관과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이슈이기도 하다.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업 중단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정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학생들이 일찍부터 노동 인력이 되는 것이나, 집과 학교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특정 소수민족들의 초혼 풍습 등과 같은 문화적 특징이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Lê Thị Bích Ngán, 2011)

2016년 4월 21일 찰라이성 인민위원회의 11/CT-UBND 지침서에 따르면 소수민족 학생들의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찰라이성 지자체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과 고등학교 과정 중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다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직 효과적이지 못한다. 이에 찰라이성 지자체는 특히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한 등교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소수민족 학생들이 연령에 맞게 교육과정을 받고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2016년에 이에 관한 지침서를 발행하였다. 이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의 각급 기관, 학교, 교육청, 청년단 및 홍보기관, 기획 투자국, 재정국 등의 협력을 도모하여 학교를 다니는 소수민족 학생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교육 효과를 향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청의 정신 하에 찰라이성 교육자들, 특히 소수민족 학생이 있는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한 등교 운동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다. 실제로 수많은 교사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집을 찾아가서 학생 및 학부모들을 설득하기도 한다. 방학 동안 부모님의 일을 도와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많은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학교를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민족 학생들은 집에서 학교까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고 우기에는 길이 많이 미끄러지는 등 접근성이 좋지 않아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다민족 국가인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찰라이성 사례를 통하여 이중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 소수민족 교육 정책의 중점적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중부의 찰라이성을 중심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소수민족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은 계급, 국경, 국가 치안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소수민족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에 관한 정책은 국가의 존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 역시 소수민족에 관한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베트남 헌법에서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모든 민족의 평등을 보장하고, 차별과 분리 배제, 소수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의 지역 발전을 위한 법률 서류에서도 모든 민족들의 평등과 단결을 통한 발전 원칙과 차별 및 분열 행위의 금지(제2호), 각 민족의 언어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제3호), 소수민족들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국가의 지원 마련(제4호)을 규정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 헌법에서 나타나는 사회통합을 위한 평등과 차별 금지의 원칙과 소수민족 발전을 위한 법률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에서는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수민족과 관련한 베트남의 교육정책을 통해 베트남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수민족 교육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학비 지원, 학교 건립과 인프라의 확장, 교육 조건의 향상, 교육 불평등 감소로 정리할 수 있다. 중점적인 특징은 소수민족 학생의 취학을 개선과 베트남어 교육 강화와 이중언어 교육 실시라는 언어교육 지원의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실제적인 소수민족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찰라이성은 베트남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간의 경제적 또는 교육적 격차가 현저하게 존재하고 있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찰라이성은 소수민족 학생들의 비율이 높지만, 소수민족 학생들의 취학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학년일수록 소수민족 학생의 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데 이는 베트남어로 진행되는 교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업 중단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찰라이성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초등학교에서 소수민족 언어교육을 실시하였고, 베트남 Unicef의 지원으로 운영되었던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3개의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등교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정책을 통하여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이중언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이 운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과 함께 다문화과정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지지체가 중점적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2. 제언

베트남의 소수민족 교육은 각 민족의 고유성을 보존하고, 또 하나의 베트남 국가로 통일되는 '다양 속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소수민족 교육은 소수민족 학생의 취학을 개선과 이중언어 교육을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소수민족 교육은 베트남 정부가 지향하는 진정한 민족 간의 공존과 다양성을 확보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중언어 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어를 함께 사용하여 이루어진 수업에서 소수민족 학생들이 공용어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학업 능력에 있어 발전을 보인 연구 결과는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현재 베트남에서 이중언어 교육은 3개의 성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지역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이중언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중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소수민족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향상하고 나아가 베트남의 다양성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는 소수민족의 언어와 함께 역사, 종교, 풍습 등 관련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교원양성과정에서는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민족 학생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등의 방안 외에도, 예비 교사 및 소수민족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역에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소수민족 학생들을 가르치는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는 단지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소수민족 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양성과정에서는 교수법을 비롯한 방법론적인 측면과 소수민족의 문화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교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학생을 위한 문화 다양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다수의 낯선 학생들을 포함한 전 국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교육은 소수민족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베트남 사회의 적응과 통합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류 민족 학생들은 소수민족의 언어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베트남이라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주류 민족인 학생들도 소수민족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인정, 다양성에 대한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 교육은 다문화 사회의 시민교육에서 필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베트남 학생들은 공존하고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민족 국가 베트남은 사회통합을 위한 소수민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을 개선과 언어, 문화의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다양 속의 통일은 소수민족 학생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의 소수민족 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과 화합이라 말할 수 없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 또는 이주아동과 함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소수민족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로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베트남 소수민족 교육정책의 현황을 소개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가치가 있다. 오래전부터 언어와 문화가 다른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하여 어떠한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교육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단 본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실천하는 교사나 교육을 받는 소수민족 학생들의 소수민족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소수민족 학생들이나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혹은 전문가 등 현장에 처해있는 연구 대상자들의 실질적 경험 또는 인식 등을 다룰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영순, 응웬 반 히에우, 오영훈, 김재민, 응웬 뚜언 끄엥, 응웬 쑤언 화, 백옥짱, 응웬 뚜언 아잉 (2013). **베트남 문화 오디세이**. 성남: 북코리아.
- 레기영짱 (2016).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본 베트남의 문화다양성교육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베트남 Unicef (2010). **소수민족의 모어에 의한 이중언어 교육 실행 연구 보고서**. 베트남 교육부.
- 베트남 Unicef (2014). **찰라이성 아동 현황 분석**. 찰라이성 인민위원회.
- 베트남 교육부 (2015). Báo cáo quốc gia giáo dục cho mọi người 2015 của Việt Nam.
- 베트남 법사이트: <https://thuvienphapluat.vn/> (검색일: 2019.01.24.).
- 베트남교육부 홈페이지 <https://moet.gov.vn/Pages/home.aspx> (검색일: 2018.06.20.).
- 조승연, 위철, 레주이다이, 보티마이프엥, 부티탄뎀, 황반배, 주광끄엥, 즈엥느카잉귀인 (2013). **베트남 혼례문화**. 국립민속박물관.
- 찰라이성 교육청 홈페이지: <http://gialai.edu.vn/> (검색일: 2018.06.25.).
- Đoàn, Văn Phúc (2012). Giáo dục tiếng mẹ đẻ trong trường tiểu học ở Đắc Lắc và thái độ của học sinh Ê Đê. *Ngôn ngữ*, 9, 41-54.
- Hoàng, Hợp Mạnh (2014). So sánh chính sách giáo dục đối với các dân tộc thiểu số vùng biên giới tỉnh Lào Cai Việt Nam và Châu Hồng Hà tỉnh Vân Nam Trung Quốc từ năm 1991 đến nay. Luận văn thạc sĩ trường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Hồng, Anh Vũ (2010). *Hiện trạng bất bình đẳng giới trong cộng đồng người dân tộc thiểu số*. Syracuse University.
- Lâm, Bá Nam (2010).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 80 năm xây dựng và phát triển.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Hà Nội.
- Lê, Thị Bích Ngân (2011). Các giải pháp khắc phục tình trạng bỏ học của học sinh người đồng bào dân tộc thiểu số ở huyện Kon Rẫy, tỉnh Kon Tum. Luận văn thạc sĩ trường Đại học Đà Nẵng.
- Nguyễn, Văn Chiêu & Trần, Văn Kham (2016). Quản lý đô thị vùng đồng bào dân tộc thiểu số ở Việt Nam. Đề tài nghiên cứu cấp bộ.
- Phan, Huy Lê (2012). Văn đề hình thành dân tộc và chủ nghĩa dân tộc ở Việt Nam. <https://tunguyenhoc.wordpress.com/2012/12/07/van-de-hinh-thanh-dan-toc-va-a-chu-nghia-dan-toc-o-viet-nam-phan-huy-le/> (검색일: 2019.1.25.).
- Phùng, Đức Tùng, Nguyễn, Việt Cường, Nguyễn, Cao Thịnh, Nguyễn, Thị Nhung

- & Tạ, Thị Khánh Vân (2017). Tổng quan thực trạng kinh tế-xã hội của 53 dân tộc thiểu số năm 2015. Ủy ban dân tộc 2017.
- Tạ, Thị Điệp (2014). Công tác xã hội với tình trạng bỏ học của học sinh dân tộc thiểu số - nghiên cứu trường hợp tại xã Đăk Jo Ta - huyện Mangyang - tỉnh Gia Lai. Luận văn thạc sĩ trường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Tổng cục thống kê và Unicef (2015). Điều tra đánh giá các mục tiêu trẻ em và phụ nữ Việt Nam 2006.
- Trần, Trí Dối (2004). Thực Trạng giáo dục ngôn ngữ ở vùng dân tộc miền núi ba tỉnh phía bắc Việt Nam.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Trần, Trí Dối & Nguyễn, Văn Thiện (2001). Tình thực tiễn trong chính sách giáo dục ngôn ngữ của Đảng và Nhà nước ta đối với vùng dân tộc thiểu số. Ngôn ngữ và đời sống, 10(72), 1-17.
- Vũ, Thị Thanh Hương (2017). Nghiên cứu đánh giá tình hình sử dụng tiếng Việt và tiếng Gia-rai trên lớp học ở các lớp 1-2 vùng dân tộc thiểu số Gia-rai của tỉnh Gia lai. Đề tài nghiên cứu cấp bộ. Viện Hàn lâm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 Vương, Xuân Tinh (2016). Về tộc người và cộng đồng quốc gia-dân tộc ở Việt Nam hiện nay. Tạp chí dân tộc học, 4(2016), 3-13.
- Ủy ban dân tộc (2017). Tổng quan thực trạng kinh tế xã hội của 53 dân tộc.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Education of Vietnamese Minorities

Duong, Thi Thanh Phuong(Inha University)

Huang, Haiying(Inh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minority education in multi-ethnic Vietnam constitutes a genuine 'unification in diversity' direct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sists of two main parts. First one is the current academic status of minority education in the Vietnamese government is presented. The Vietnamese government was implementing various education policies for minority studen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f all ethnic groups appearing in the Constitution. Secondly, we looked at the minority education program in Gialai province in central Vietnam, where there are a large number of minority students. Studies have confirmed that minority education in Vietnam was focused on improving school enrollment and supporting language education for minority students,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supports. However, as can be seen from the case of Gia Lai province, Vietnam has a marked educational gap among the ethnic groups. Especially, the low enrollment rate or the high dropout rate of minority students show that there is not enough to secure the real coexistence and diversity among the ethnic groups that the Vietnamese government pursu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direction of Vietnamese minority education was presented as an expansion of dual language education, the implementation of understanding education for minority students in the teacher training process, and the strengthening of education on diversity for the Kinh ethnic students.

★ **Key words:** Vietnam, Minority, Minority Education, Bilingual Education, Cultural Diversity

논문 접수: 2019년 7월 2일

논문 심사: 2019년 8월 26일

게재 승인: 2019년 9월 5일